

충청남도 예술분야(시각문화교육)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학)에서는 공주교육대학교(총장 전우수)와 공동주최로 9월 10일(목)에 이 대학 청목관 정화홀에서 국내외 시각문화교육분야의 전문가, 공주교육대학교 교직원 및 미술교육과 재학생, 충청남도 지역 초·중등학교 미술교사,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예술분야(시각문화교육)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시각문화 전공 미술교육학의 세계적 석학인(미국 Brent Wilson 교수, 미국 Christine Ballengee Morris 교수, 영국 Nicholas Addison 교수)들을 초빙하여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은 선도적이며 창의적인 미술교육 인재육성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9년도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선정·추진 및 도·시·군 담당관 설명회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광역자치단체 평생학습 네트워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 충청남도 대응자금 1억 1천만원 등 총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번 공모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5개 유형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충청남도는 전국 16개 시·도가 경합한 가운데 6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남, 경북)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형 광역자치단체 평생학습 추진모델 구축사업」이 우수성을 인정 받아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에는 평생학습 기반구축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평생학습 운영에 참여하는 평생교육사 및 전담공무원·평생학습 도우미 양성과정 운영,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평생학습 지식·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평생학습 계좌제」와 연계될 수 있는 충남도 평생학습 D/B구축사업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9월 9일(수)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각 시·군의 평생학습 담당자들을 불러 전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갖고 향후 사업수행에의 협조를 다짐하였다.

2009년도 제1회 「Job아라! 포럼」 (산·학·관 HR전문가 포럼)개최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8월 14일(금)에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관계관, 「Job아라! 포럼」공동대표(최병학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정영화 남서울대학교 취업정보센터 소장),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신호철 소장), 충청투데이(이의형 부장), 충청남도 내 8개 기업의 인사담당자, 대학(교) 취업담당자, 충청남도내 대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제1회 「Job아라! 포럼」(산·학·관 HR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Job아라! 포럼」 행사에서는 충청투데이 취재부(이의형 부장)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의 홍보전략"을 발표하였고 크루셜텍(주), (주)에나인더스트리, (주)우리미디어, (주)부방테크론, SKC Haas 디스플레이 필름(유), (주)재능교육, 비스티온IK, 태산엘시디(주) 8개 기업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충청남도 관계관 및 기업인사담당자, 대학(교) 취업담당자들이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며 충남지역 대학과 기업의 구직·구인간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Job아라! 포럼」은 도내 전 대학과 지역기업체가 참여하여 충청남도 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녹색성장 인적자원개발 세미나 개최



충남의 녹색성장정책을 전국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재양성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학)는 7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후원으로 최병학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이영훈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철모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장,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 녹색성장관련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녹색성장 인재양성 추진전략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연계성을 도모하여 충남의 녹색성장 인재양성 기본계획 및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 서철모 지역녹색성장과장은 기초연설에서 "충남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정부가 계획한 자전거 교통 분담자원, 공공청사·시설 및 민간건물의 저비용·고효율 에너지 시설 도입 시 인센티브 제공,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 주요 선도 사업과 연계한

지역별 사업 추진체계를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녹색성장 역할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직업개발원 황규희 소장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은 융합녹색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주력하면서 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체계 및 구체화 전략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인력양성 실용성 제고를 위해 산업체 융합인력 양성 참여 지원, 정부 및 지방출연(연)과 해외 우수 인재를 통한 교수요원 확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를 확대시켜야 한다"며 "신성장동력산업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책임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내세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 언급되었듯이 2013년까지 매년 GDP의 2% 수준으로 총107.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인력수요 측면에서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 총152.9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면서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지역인 충남의 특성을 분석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대에 따른 일자리, 기후변화 대응 녹색일자리, 핵심 녹색기술 개발인력 및 환경컨설팅 전문인력 등을 중점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의 체계적인 녹색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녹색기술수요에 부합한 필요 인력의 최적 공급시스템 구축,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 충남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녹색파트너십 구축 등을 고려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